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가?

강화구 목사(제일영도교회)

(*지난 호에 이어)

1. 창세기 8-11장 개요

1) 노아의 톨레도트(2) (7:1-9:29)

물이 온 땅을 덮음으로 다시 태초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질서는 무너졌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Creation)가 홍수로 파괴된 순간,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8:1), 파괴된 창조 세계(De-creation)를 재창조(Re-Creation)하신다. 이로써 하나님은 노아를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간주하셨고,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비교하는 다음 표를 보라.

	창조	재창조
첫째 날	1:2 땅, 깊은, 하나님의 신, 물	8:1-2 바람(신), 땅, 물, 깊은
둘째 날	1:7-8 물, 하늘	8:2b 하늘
셋째 날	1:9 물, 물, 드러남	8:3-5 물, 산꼭대기, 드러남
넷째 날	재창조 과정에 언급될 이유 없음	
다섯째 날	1:20 새, 땅 위, 하늘 위	8:7-8 새, 땅위
여섯째 날	1:24 생물, 가축, 땅에 기는 것, 동물 1:26 사람, 형상	8:17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9:6 형상, 사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다 진전된 형태의 언약을 노아와 맺으신다. 비록 사람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약속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노아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 이 모든 언약을 확증하시듯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두시고, 다

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아 역시 땅의 경작자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 벌거벗음을 깨달았던 아담과 판박이 모습이다. 이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켜 가실 것이다.

2) 열방의 톨레도트 (10:1-11:9)

새로운 인류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열국이 나온다. 많은 후손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이며 복의 일환이다. 열방의 톨레도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서론	1절(톨레도트, 홍수 후, 낳았다)
야벳의 족보	2-5절(5절: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함의 족보	6-20절(20절: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셋의 족보	21-31절(31절: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결론	32절(톨레도트, 홍수 후, 나뉘었다)

열방의 톨레도트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온 열방이 원래 한 가족이었음을 알린다. 둘째, 열방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에 맞춘다(야벳의 후손 14, 함 30, 셈 26명). 비록 모든 민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완전수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한다.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와 인종을

나누심(신 32:8)에서 의도적으로 완전수 70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숫자와 열방의 숫자를 동일하게 언급함으로써 열방 전체로 향한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나타낸다.

흠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고자 하는 동기로 일어나는 바벨탑 사건은 이런 선교적 사명을 무시한 처사다. 흠어지지 않고 도시를 건설하고 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가신다. 아브라함이 그 답이다.

2. 족장 시대 개요(1) (11-26장)

1) 셈의 톨레도트 (11:10-26)

셈의 족보는 창세기 족보 중에 특별하다. 목록만 제시하면서 직계 족보인 경우는 5장과 11장 족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두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다.

5장	11장
A가 X세에 B를 낳았다	A가 X세에 B를 낳았다
A가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A가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A가 Z (X+Y)세를 향수하였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X) (X)

두 이야기는 직계 족보의 특성상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가계의 흐름을 추적한다. 뚜렷한 차이점은 5장 아담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는 데 방점을 두는 반면, 11장 셈의 족보에서는 죽음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데라의 톨레도트 (11:26-25:11)

이 단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정식 명칭은 데라의 톨레도트다. 전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이 있다.

A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과 계보 (11:27-32)

B 약속 (12:1-9)

C 사라에게 닥친 위험 (12:10-13:1)

D 아브라함과 롯 (13:2-14:24)

E 계약 (15:1-21)

하갈-이스마엘 (16:1-16)

E' 계약 (17:1-27)

D' 아브라함과 롯 (18:16-19:38)

C' 사라에게 닥친 위험 (20:1-21:34)

B' 약속의 성취 (22:1-19)

A'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계보

(22:20-25:11)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갱신과 약속의 자녀로 기대되었던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이 있다. 전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짧은 족보가 나와 전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가운데 내용은 거의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데칼코마니처럼 대구를 이루며 중복된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왜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적 중심에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는 점과 아브라함은 부름 받은 일생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들이 그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문학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베푸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후손, 땅, 그리고 열방의 복이다. 이 점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먼저 나타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갱신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장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창 12:1-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이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저주를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명령어와 그 명령에 주어진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약속은 후손이 있어야만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특별히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읽어 가면 긴장감은 훨씬 더해진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에(11:30) 하나님의 방법과 결과를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 한 때는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자신의 몸에서 낳 자가 후사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야 말로 약속하신 후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실 때, 두 사람 모두 웃으며, 이스마엘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던 것이 그런 이유다(창 17:17-18).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신다.

지금은 비록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에게 주어질 축복의 현장은 가나안 땅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상실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신다. 가인의 후손이 성과 대를 쌓아 올리면서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자는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풍요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요, 열방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것

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결코 다시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 내리 티브 안에서 그를 만나는 모든 이방인은 복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창 12:17),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찾아 축복했던 멜기세덱과 승리를 가져온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고 통명스럽게 대우한 소돔 왕의 운명이 갈리고 말았다(창 14:17-2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 18:18). 이런 사명에 따라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인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를 통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창 20:7).

3) 이스마엘의 툴레도트 (25:12-18)

창세기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는, 약속의 후손 계열에서 멀어지는 인물의 족보를 주요 등장인물보다 먼저 소개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툴레도트를 소개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소개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도 열두 아들을 두었으며 그들도 족속을 이루었다.

4) 이삭의 툴레도트 (1) (25:19-26:35)

여기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삭도 아브라함,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족장이지만,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위대한 아들 야곱의 아버지로 나타날 뿐,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이야기 단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점과 장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아버지가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과 달리, 이삭은 20년을 기다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창 25:21). 아버지처럼 이삭도 그랄 땅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았다(창 26:7).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연약하여 넘어진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셨으며(창 26:2-5),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백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창 26:12-13). 아버지 때처럼 그를 보던 이방인 왕 아비멜렉 역시 이삭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싶어 한다. 여호와와 복이 이삭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창 26:28). 세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

3. 신학적 주제

1) 노함의 잘못은 무엇인가? (창 9:20-27)

홍수 이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 수확 후 포도주를 마셨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웠었다. 이를 제일 먼저 본 함은 형제들에게 이를 알렸고, 형

제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 함의 죄악은 과연 무엇인가? 하체를 본다는 말은 때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곤 하기 때문에 다음의 가능성이 제기 된다: 1) 동성에 2) 아버지의 하체 즉 어머니를 범함.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본문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이 기록된 문학적 방식이 아담 이야기와 얼마나 유사하게 전개되는가이다.

타락 이야기(창 2-3)	술 취한 노아 이야기(창 9:20)
동산의 창설과 경작자(2:8)	노아-땅의 경작자(9:20)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3:6)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9:21)
벗은 줄을 알고(3:7)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9:21)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림(3:7)	셈, 야벳-아비의 하체를 덮음(9:23)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3:7)	술이 깨어 함의 일을 알고(9:24)
저주를 받아(3:14)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9:25)
세 아들(4:1-2, 25)	세 아들(9:25-2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담의 타락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홍수 이후의 삶을 요약하기 위해 단 이 사건만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병행 본문의 흐름을 따르면 함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드러낸 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가죽옷을 지어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 함의 죄악의 본질은 잠깐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연결된다.

2) 사래가 애굽 땅에서 만난 일은 무엇이었나?

(창 12:10-13:1)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람은 사래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 아브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래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았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사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사래가 애굽에서 실제로 만났던 일들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지만, 본문 자체가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절한 대답일 것이다. 명백한 것은 사래가 실제로 바로 왕과 결혼했다는 점이다(19절). 사래는 실제로 바로 왕과 결혼했으며, 하렘의 일원(후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래가 실제로 결혼했다면 바로 왕과 첫날밤을 보냈을까? 사래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성격은 무엇인가? 바로 왕은 도대체 어떻게 그 재앙이 사래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본문은 거의 관심이 없다. 사실상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대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이방 왕 앞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세 번이나 나타난다는 점이다(창 12:10-13:1; 20:1-18; 26:1-11). 왜 동일해 보이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될까? 혹시 반복을 통해 어떤 메시지의 흐름과 발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더욱 의미가 있다. 적어도 애굽에서 일어난 12장의 일은 20장과 26장의 유사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전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 이야기가 어떤 유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간단하지만 다음 표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라.

	12:10-13:1	20:1-18	26:1-11
장소	애굽	그랄	그랄
인물	아브람, 사래, 바로	아브라함, 사라, 아비멜렉	이삭, 리브가, 아비멜렉
이유	기근	X	아브라함 때와 다른 기근
신적 현현	X	X	2-5절
속임 계획	애굽에 들어가기 전	X (사건 이후 드러남)	내레이터
과정	애굽인들이 아름다움을 칭찬	아름다움 언급 X	리브가의 아름다움, 백성들의 칭찬 언급 X
일어난 일	사래가 바로의 집으로	아비멜렉이 사래를 취함	X
부 (재물)	바로에 의해 취해진 이후	아비멜렉에 의해 알려진 이후	드러난 이후, 그러나 사건과 무관함
하나님의 개입	여호와께서 심각한 질병을 보내심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	X
드러남	X	하나님이 막으심	우연히
소환	바로 소환과 책망, 아브람의 무응답	아비멜렉의 소환 아브라함의 긴 변명 (속임의 동기)	아비멜렉이 이삭을 비난, 이삭의 응답 (속임의 동기)
왕의 명령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명함
결과	바로가 쫓아냄	- 아비멜렉이 부를 제공하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허락 -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함 -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 하나님의 고치심	이삭이 농사짓고 하나님이 축복하심 (부)

3)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왜 더 기도하지 않았나?

(창 18:23-33)

창세기 18:16-33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 스자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 의인 오십 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열 명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계속했으나 결국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다면 소돔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질문부터 옳지 않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 자체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시작은 이렇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23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25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실 것에 대해 질문하였고, 소돔의 구원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4)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나? (창 24:11-14)

아브라함의 종은 멀리 밧단 아람까지 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붓감을 찾아야 했다.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한다. “만일 이러이러하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신

붓감인 것을 알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리브가는 그가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다면 종의 이러한 기도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현상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좋으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는 없다.

5)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언제 태어난 것인가? (창 25:1-6)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었다. 그런데 그 이후 25장은 아브라함에게 후처 그두라가 있었고, 여러 아들을 낳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창세기 본문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즉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었던 때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137세 이후에도 여전히 출산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다. 따라서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손들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을 뿐, 시간상 후대의 일로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면, 후처 그두라를 통한 아들들의 출산은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